

교회 :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장(場)

— 에베소서 4:15, 16 —

최 홍 석

(총신대신대원 교수)

1.

우리는 놀라우면서도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의 수준은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만 인간의 심성은 극한 야수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인 빈곤감, 또한 크게 느끼는 시대입니다. 전세계가 화해의 분위기로 무르익어 가더니 전쟁의 돌풍이 지나갔습니다. 폭풍 후의 고요함처럼 문자 그대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예측을 불허합니다.

미래에 대한 이러한 충격 때문에 현대인들의 심리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만물이 탄식합니다(롬 8:22). 믿는 자들 속에도 탄식이 있습니다: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문제 없는 영역이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요즈음, 신자들 사이에 종말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는 것도 결코 이와 무관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펠시콜레가 다녀간 이후, 불건전한 사상들이 회리바람처럼 교회를 어지럽히고, 시한부 종말론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런 유(類)의 현상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현상 배후에 여러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1) 때로는 현실 교회들이 은총의 역동성을 상실하고, 복음의 생명력을 공급하지 못할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했고, (2) 혹은 1920년대와 같은 경제 공황기에 접

어 들었 을 때, 타 계 주 의 적 이 고 물 현 세 적 인 신 비 주 의 운 동 이 불 건 전 한 종 말 론 과 결 부 되 어 현 실 에 대 한 불 만 으 로 표 출 되 기 도 했 습 니 다(이 용 도, 황 국 주 등). (3) 또 한 불 건 전 한 종 말 론 이 등 장 할 수 있 는 사 회 적 요 인 은 후 기 산 업 사 회 와 결 부 되 어 서 도 발 견 될 수 있 습 니 다. 후 기 산 업 사 회 가 빚 어 낸 부 정 적 인 결 과 들 이 얼 마 나 많 습 니 까? 공 해 로 야 기 된 환 경 오 염 의 문 제 가 인 간 의 생 존 을 깊 이 위 험 하 고 있 습 니 다. 그 와 더 불 어 자 동 화 되 고 기 계 화 된 사 회 구 조 가 인 간 소 외 라 는 병 리 현 상 을 극 대 화 시 켜 주 니 다. 현 대 인 들 은 생 명 력 이 넘 치 며 따 뜻 한 인 정 이 오 가 는 인 격 적 인 간 관 계 를 갈 망 하 고 추 구 합 니 다. 이 와 같 은 갈 망 은 대 규 모 적 인 모 임 에 서 보 다 는 오 히 려 소 규 모 적 인 모 임 에 서 해 소 의 가 능 성 이 커 집 니 다. 그 런 데 교 회 가 대 형 화 되 고 제 도 화 되 는 추 세 에 놓 이 게 되 면, 문 제 를 극 복 할 수 있 는 가 능 성 은 더 욱 희 박 해 지 고 맙 니 다. 결 국 이 러 한 현 실 의 갈 등 구 조 속 에 서 영 적 인 갈 등 과 갈 망 은 신 비 주 의 적 인 성 향 과 영 합 될 수 있 으 며, 또 한 현 실 에 대 한 불 만 과 함 께 불 건 전 한 종 말 론 으 로 발 견 될 여 지 는 얼 마 든 지 남 아 있 습 니 다.

2.

이 러 한 어 지 러 운 때 에 하 나 님 의 관 심 은 누 구 에 게 로 향 합 니 까? “너희 는 예 루 살 렘 거 리 로 빠 리 왕 래 하 며 그 넓 은 거 리 에 서 찾 아 보 고 알 라. 너희 가 만 일 공 의 를 행 하 며 진 리 를 구 하 는 자 를 한 사 람 이 라 도 찾 으 면 내 가 이 성 을 사 하 리 라”(렘 5:1). 여 호 와 의 관 심 은 의 인 에 게 로 향 합 니 다. 누 가 의 인 입 니 까? 하 나 님 의 은 총 을 입 은 자 가 곧 의 인 입 니 다. 인 간 지 으 션 을 하 나 님 께 서 한 탄 할 정 도 로 온 땅 이 패 괴 하 였 을 때 에 도, 노 아 는 의 인 이 요 당 세 에 완 전 한 자 라 고 하 였 습 니 다(창 6:9). 그 이 유 가 어 디 에 있 습 니 까? 그 까 닭 은 노 아 가 여 호 와 께 은 혜 를 입 었 기 때 문 이 지(창 6:8), 결 코 그 자 신 에 게 서 의 의 근 거 를 발 견 할 수 없 습 니 다. 누 가 은 총 을 입 은 자 입 니 까? 엡 2:8은 ‘구 원 받 은 자 들’ 이 라 고 말 씀 합 니 다: “너희 가 그 은 혜 를 인 하 여 믿 음 으 로 말 미 암 아 구 원 을 얻 었 나 니 이 것 이 너희 에 게 서 난 것 이 아 니 요 하 나 님 의 선 물 이 라”. ‘구 원 받 은 공 동 체’ 에 베 소 서 는 이 를 가 리 켜 ‘교 회’ 라 고 부 름 니 다(엡 1:22). 이 어 지 러 운 세 상 가 운 데 서 라 도, 하 나 님 의 관 심 은 바 로 이 곳 에 머 물 러 있 습 니 다.

에 베 소 서 의 중 심 내 용 은 ‘그 리 스 도 의 몸 된 교 회’ 입 니 다. 이 세 상 에 는

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교회는 마치 인간들의 모임과 비슷하게 보이는 국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전혀 그 본질을 달리합니다. 세상의 단체들은 같은 목적과 뜻을 가진 자들이 만듭니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인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은총의 산물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기초가 하나님의 선택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이 점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엡 1:22~23)에 대해 논하기 전에, 구원을 위한 삼위신적인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엡 1:3~14).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엡 1:4~5).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엡 2:1).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엡 3:15). 사실 에베소서에 바울의 기도가 두 번 나옵니다. 첫번째 기도는 엡 1장에 나오고, 두 번째 기도는 엡 3장에서 발견됩니다. 전자가 인식론적 차원의 기도라면, 후자는 존재론적 차원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1:1~19).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3:14~19).

이는 모두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간구하고 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총’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았고, 또한 살고 있으며 장래에도 은총으로 살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적 인격자’입니다. 지음받았기에 창조주에 대해서 의존적입니다. 의존적이기에 한 순간도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인간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향유합니다. 자유를 가지기에 결단할 수 있는 존재요, 그러기에 인간은 책임적 존재입니다. 무슨 말을 하나 무슨 행동을 하나 거기에 다 책임이 수반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응답해야 될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은총받은 자에게 더 큰 의무가 요구됩니다. 에베소서에는 그 의무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침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4:1~3). 그것은 곧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일입니다. 힘써 지킬 일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이요, 그 방법은 겸손과 온유, 인내와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임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서로서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더불어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의 얼굴들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과 죄와 한계를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눈을 들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더불어 바라보십시오. 항상 바라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신망애의 보화를 발견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로서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바라보고, 자나깨나 그리스도를 중심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지체의 하나됨이 역사의 현실로 실현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강림하실 때까지 계속 은혜 안에서 힘써야 할 지상 교회의 과제입니다. 이리하여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3).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의미합니다(엡 4:23~24).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먼저 심령에 변화가 옵니다. 심령의 변화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심령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마음으로 나타냅니다(엡 4:31~32). 심령의 변화는 또한 언어 생활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게 됩니다(엡 4:25). 더러운 말은 버리게 됩니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엡 4:29). 심령의 변화는 또한 행위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처럼 행치 아니합니다(엡 4:17). 불의한 소득을 얻기 위해 행하지 않습니다. 빈궁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를 구제하기 위해 힘써 일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가 됩니다(엡 4:28).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닮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한평생, 기도 가운데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입니다’(빌 3:12~14)하는 간구의 내용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만하면 노련한 사도요, 그 만하면 수준의 경지에 이른 것 같은데, 그는 한평생 그리스도에 대한 긍정을 위하여 자기 부정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전문가가 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곧 ‘믿음의 일’일 것입니다.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서십시오.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4.

제도적인 교회가 많은 곳에 관심을 쏟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제도적인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제도적인 교회가 존재합니까?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데 그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엡 4:11~12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고딕체 글 부분을 원문대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무장시켜) 봉사의 일을 하

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볼 때, 교회 안에 말씀으로 섬기는 직분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그 사역의 목적이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케 된 성도들이 하는 일에 그 사역의 목적이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케 된 성도들이 스스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느냐 하는 여기에 사역의 핵심이 놓여 있습니다. 모든 일과 모든 직책은 이 일을 위한 방편들입니다.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 자체입니다. 이 일을 위해 제도적인 교회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기도 합니다. 눈물로 간구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곧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고난을 감수합니다. 제도적인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mater fidelium)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 그리스도로 승리케 하는 수단들입니다.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세례 요한의 손가락들입니다. 회중 자체, 사람 자체, 생명 자체를 위해 섬기는 봉사자들입니다.

에베소서 4:12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신의 뒷 부분에 가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엡 4:24)은 우연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지향점이 거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그 회복은 교회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신(神)형상 회복의 장(場)입니다. 교회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골 1:15). 물론 그는 비피조적인 형상(Imago increata)이요, 우리는 피조적인 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神)형상의 내용을 참으로 알기 원한다면,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에게 두 가지 낮은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그것은 그의 신성입니다. 둘째, 그의 인성 또한 우리에게서 낮은 점입니다. 그는 참 사람이거나 무죄하신 분이시요, 무죄하신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더 가까이 바라볼 때,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요 4:34).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이웃을 향하셨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 15:13)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웃을 향한 이 관심이 구속적인 성격의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타자를 위한 존재였습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피조물을 다스리셨습니다. 물론 그의 이적이 신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다스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연을 통치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는 형상의 참된 기능이 (1) 첫째,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둘째, 이웃을 향하는 것이며 셋째, 자연을 다스리는 데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삼중 관계 속에 사는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공간적으로 교회당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1) 삶의 전 영역에서 참된 신형상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항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향해 영혼이 열린 예배적인 인격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2) 복음의 눈으로 이웃과 소외된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인화 협동적인 존재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 피조물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관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문화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참여하는 모든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소명의 장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동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공직에 근무하든, 개인적인 일을 경영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일터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그것이 곧 주의 일임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기독교적인 영향력이 어두운 세상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복음화와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이 실현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도적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오늘 여기서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으로 말미암는 일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피차 돌아보고, 더불어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소명에 바르게 응답하는 존귀한 교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시기를 빕니다.